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이 경 식
〈화인엔지니어링 사장〉

불, 물, 바람 이 세가지를 잘 다루는 국민은 잘 산다는 말이 있다. 이들 세가지는 너무 흔해서 그런지 그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근성인지 모르지만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절대 필요한 요소이면서도 3대 재해의 요인임을 재해 발생때나 잠시 느낄 뿐 며칠 지나면 망각 속으로 넘어가고 만다. 그래서인지 같은 류의 재해가 계속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세계 제일이어서 외국에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와 더불어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제일이라니 생각 좀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노동당국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987년에 하루 평균 391명의 산재를 발생하고 있고 이중 5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화재의 경우도 재해의 일종으로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88년도에는 1만2천5백7건이 발생, 전년대비 2천3백63건이 증가하였다.

물론 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다. 그 하나가 옛날에 허술하게 적당히 지은 건축물이 지금 와서 불이 나니 옛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어떤 이는 법이 허술하다거나 자주 고쳐서 그렇다고들 하고 어떤 이는 소방인의 기우가 너무 낮아서 그렇지 않을 수 있냐고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설해 놓고도 유지관리를 엉망으로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제대로 키워진 소방인이 없다든지, 소방기술자가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에 깊이 관여하기가 힘들

다거나 아예 관여치도 못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공공개념 부족

그 어느것 하나 틀린 이유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우리 모두의 공공개념의 부족이라고 말하고 싶다. 화재의 대부분이 천재(天災)가 아니고 인재(人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발생정도나 피해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다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모두가 민주주의적으로 살기위하여는 적절한 질서의식, 즉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선별해서 행동해야 되고 나는 좋아도 남에게 피해가 되는지 등을 따져서 행동하여야 하는 아주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그 많은 불이 났지만 집주인 타죽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들어 본 것 같다. 제 집이니까 제마음대로 지어도 될 것 같지만 궁극적 피해자는 자기가 아니고 남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건물주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물론 클 것이라 보지만 아무 죄도 없이 그저 지어둔 건물을 믿고 이용하는 제3자의 재생불가능한 인체적, 정신적 피해는 실질적으로 막심하다. 건물주나 건물주를 대신하고 있는 기술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거나 또는 경시하고 있

다. 내 사정이나 내 욕심만을 생각하고 남은 상관 없다는 생각들이 모든 화재를 자초하는 것이다.

나도 잘 살아야 겠지만 남들도 잘 살아야 되고 남이 잘 살아야 내가 편안할 수 있다는 우리 모두에 대한 생각, 즉 공공개념의 확보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 그러므로 소방설비는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 등에 안전제일주의로 시설 되어야지 어느 특정적인 단편적 이익이나 어느 개인의 영리목적에 절대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공공성에 비추어 사회적 내지는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요즈음은 조그마한 호텔하나만 불이 나도 사상자 중에는 외국인이 한둘씩 꼭 끼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작은 국제화랄 수 있다. 어지간한 외국의 화재사건이나 비행기 사고가 발생해도 사상자중에는 한국인이 끼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안가는데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니 외국 자주 나가는 분의 가족은 비록 외국집이지만 불 좀 만나게 잘 지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어찌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어찌 간섭한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나라의 우리집이지만 소방설비만은 좀 국제적으로 몇몇한 집을 지어야겠다.

소방기술분야에 대한 적극적 관심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의 목적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안전히 보호하여 이 사회의 안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음은 소방법에 명시된 바와 같다.

그런데 재산이란 광의의 표현처럼 소방설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지만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도 매우 넓고 깊다. 단순히 법이 정하고 있는 것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구태여 전문기술자가 필요없을 지도 모른다.

화재의 생성, 소화 원리, 인체의학 및 공학적 지식 위에 토목, 건축, 구조, 기계, 전기설비 기술 등 하나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소방설비상 필요한 기술인 것이다.

더욱이나 신물질의 발견, 발명이 급속하고 전자계의 급속한 발달은 지금의 하루가 과거의 1년과 같다고 말할 정도이고 소방설비에서의 응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요즈음은 좀더 고차원적 기술이 필요하다. 기

술분야가 세분화되어 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소방설비는 모든 기술의 집약적 결정체로서 우리 모두가 다함께 공공의 개념으로 시설관리하여야 할 대상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모든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계획, 설계, 관리까지 모든 집단의 기술자들은 물론 이용자인 일반국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완전한 것을 이룰 수 있다.

각 분야에 걸친 종합적 대책과 이에 대한 참여

그러므로 어떤 특정 개인의 특정분야 기술로서는 소방설비의 제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모든 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의 협조와 종합적 검토위에서만 이 가능하며 관리능력이 있는 관리자와 일반사용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바탕이 될 때 완전한 시설유지가 가능해진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원한, 소요, 절도 등에 의한 방화사건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 외국의 경향이라고 한다. 예상하기도 어려운 장소와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건축주의 단편적 사고, 단기 안목적인 경제력 집착 등 원인야 많겠지만, 기술자들의 역량부족은 소방안전확보에 큰 애덕요인이 됨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공공개념에 입각한 관의 개입은 어떤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는 보지만 관의 구조적인 직선적 단편성 때문에 현실성, 장래성, 고차원적 기술적용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의 기술향상을 계속 추구하면서 해당분야 전문기술인 활용에 좀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분야별 전문인의 양성과 생활보장,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으로 지속적 연구와 화재원인 분석, 전문인에 의한 현실적 조사 피해정도 제시 및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험제도의 도입, 소방법의 근대화와 현실성 부여와 직선성 및 한계성 배제, 이들 직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국민의 화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때 비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손실을 막을 수 있다. 1일 평균 3명에 가까운 부상자, 연간 재산손실액 200억원(화보통계, 실질적인 전체피해액은 훨씬 많으리라 보지만) 이상의 무의미한 낭비는 자연 막을 수 있게 된다. 돈도 돈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